

‘정겨운 사람들의 흥겨운 만남’

제17회 고창농악경연대회

8일 고창농악전수관서

정겨운 사람들의 흥겨운 만남 ‘제17회 고창농악경연대회’가 오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고창농악경연대회는 고창군 14개 읍·면에서 출전한 15개 농악단이 경쟁보다는 화합을 목표로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공음면 참나무정농악단의 우승기 반환을 시작으로 15개 농악단의 열린 경연이 시작된다.

특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를 올곧게 지켜오고 있는 진주오광대보존회를 초청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경상도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대상(고창군수상), 금상(고창군장상), 합박웃음상(인기상), 한마음상(화합상), 열기구상(응원상), 춤사위상(율동상), 짜임새상(구성상) 등의 단체상과 개인상을 수여한다.

1등인 대상 수상팀은 고창군을 대표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 시·군 농악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행사를 주최하는 이명훈 보존회장은 “고창농악과 함께 고창군민들의 행복한 축제가 되길 바라며 세대간 끊이지 않는 전통문화예술의



지난해 열린 제16회 고창농악경연대회 자료사진.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농악경연대회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며 고창군, 고창군의회, NH

농협 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군의 작은 마을 위한 농촌문화순회공연 열려

장수군의 과소화(20가구 미만)마을만을 위한 공연이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년 신나는 문화예술여행’이라는 명칭의 이 행사는 문화공연단체와 문화행유가 어려운 지역과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사로써 장수군 관내 과소화마을인 번안면 원복마을과 산서면 동촌마을이 선정돼 진행됐다.

최근 번안면 원복마을에서는 ‘망구, 춤추며 가는 인생길(주최 상삼편집소 피플)’이라는 주제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탈춤, 전통무용과 더불어 삶의 애환을 한편의 연극으로 버무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며 진행된 이 공연은 국포 보건진료소에서 치러졌으며 원복마을 외에도 주변 마을의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여 웃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4일에는 산서면 동촌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열렸다. (주)동촌서커스진흥원의 주최로 열린 ‘향수의 서커스 그들이 온다.’는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위주의 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장르의 공연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마찬가지로 문화소외현상을 겪고 있는 다른 마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산서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문화생활 및 예술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던



번안 국포보건진료소에서 ‘망구, 춤추며 가는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문화 예술공연이 펼쳐졌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가을맞이 시와 함께 하는 콘서트’가 한국시낭송문화디딤들의 주관으로 최근 부안을 몰의 거리 예술 광장에서 100여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열렸다.

‘무더운 여름밤 달래준 전통공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가을맞이 시(詩)와 함께하는 콘서트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가을맞이 시와 함께 하는 콘서트’가 한국시낭송문화디딤들(대표 고순복)의 주관으로 최근 부안을 몰의 거리 예술 광장에서 100여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박화실 단장이 이끄는 ‘골드 폭스’ ‘추담판소리’ ‘석암가사’ ‘한국시문화디딤들 시낭송’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이끄는 자생 단체가 협연을 하는 형식으로 열린 콘서트는 잠시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 주었다.

공연장의 한 관람객은 장소와 규모가 열악함에도 어느 공연보다 열린 공연을 해

준 출연자들의 돋보인 열연을 극구 칭찬했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 가락, 가사, 대중가요 연주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상설공연을 열어 주민의 예술 향수를 풀어주는 고장의 예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응해 했다.

공연을 주관한 한국시낭송문화 디딤들 고순복회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우리 고장 전통문화를 공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제29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 추가접수

14일까지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접수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 이하 제전위)는 제29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를 4일부터 14일까지(마감 오후6시) 추가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부모(婦道, 부모공경, 가정화목, 다복, 헌신)와 부덕(婦德,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어질고 너그러운 덕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등 사회적·교육적 귀감이 되는 여성이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기간 내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제전위는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의 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함께 10월 19일 열리는 제29회 정읍사문화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홈페이지(www.jthf.or.kr)를 참고하거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실(☎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